

청정 전북교육공동체 조성 '총력'

도교육청, 공직자 '범 감수성' 향상방안 마련

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건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정 전북 교육공동체를 위한 공직자 범 감수성 향상 방안을 마련, 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공무원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사건 처리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1%~0.08%로 낮추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이 가능토록 했다.

또 소극행정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청렴의무 위반 등을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처리기준 강화와는 별도로 비위 행위자가 직접 수사기관 조사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키로 했다.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연말연시, 인사철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에는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술 위주의 회식문화 지양 및 숙취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과 같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공무원 비위 발생 건수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2회 이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 개인 스트레스 관리, 개인 및 대인관계 상담을 반영해 근본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각종 범죄 발생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영역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의 범 감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최근 'E.A.T교육인증제'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LINC+사업단, 현장 맞춤형 교육 '호응'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이 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E.A.T교육인증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E.A.T교육인증제'는 특화분야(E)에너지, A농식품, T전통문화)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 시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LINC+사업단이 만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2~23일 양일 간 이뤄진 이번 교육에는 식품영양학과와 식품공학과 등에서 20명의 학생이 참여해 대점과 진천, 충주 일원의 기업체 탐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첫날 (주)맥키스컴퍼니를 비롯해 해마로푸드서비스(주), 비에이치엔바이오 등을 찾았고, 둘째날에는 생표우리발효연구중심을 방문했다. 이번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각 기

업의 식품 제조과정,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한 바이오 연구개발의 이해, 포장 및 유통과정 등을 체험했다.

또한 학생들은 '빅데이터'를 통한 식품산업의 트렌드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도 들으며 실무 뿐 아니라 이론 교육까지 균형을 맞췄다.

특히 농식품 관련학과 학생들과 각 기업 담당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 적성, 성격에 맞는 직업군과 직업환경, 직무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접했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E.A.T. 교육인증제 프로그램'에는 국내 프로그램 이외에도 해외 우수 기업을 탐방하는 맞춤형 교육과 마스터 교육과정 등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화분야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고교생 대상 인문학 콘서트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고교생 인문학 콘서트는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사람 책, 삶의 무늬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분야별 권위 있는 작가들의 강연과 학생 미니 인문학 강연으로 꾸러진다.

24일 1강에서는 한국의 대표 논객 강준만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인간, 그 영원한 수수께끼 : 행동경제학으로 본 인간학'을 통해 수평지향적 삶으로의 변화,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 중심의 문제 해결법을 제안했다.

31일 2강에서는 우리 시대 디지털 인문학자 구본권 작가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공부, 우리의 꿈'을 주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목전에 둔 지금, 변화의 위협을 기회로 만들 실질적 조언과 통찰을 소개한다.

9월 7일 3강에서는 소설가 정유정 강사와 함께 『진이·지니』이야기를 이야기하다 : 이야기의 탄생과 집필과정'을 통해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들려줄 예정이다.

마지막 인문학콘서트는 시험기간과 추석연휴를 지나 오는 9월 21일 '현대인의 삶의 문제에 대한 모든 인문학적 해석'을 주제로 학생 미니 인문학 강연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강연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팀 또는 개인별로 강연 계획서 및 샘플 영상(1분 이내)을 9월 3일까지 (re:se70@bedu.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문학 콘서트는 강연과 질의응답, 저자 서명회 등이 이어지며 우수 참가 학생들에게는 푸짐한 책 선물이 돌아간다. /장은성 기자



이리공고 관악부 '기림 윈드오케스트라'가 전국대회를 휩쓸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관악부로 자리매김했다.

이리공고 관악부, 전국대회 휩쓸며 위상 드높여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기욱) 관악부 '기림 윈드오케스트라'가 전국대회를 휩쓸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관악부로 자리매김했다.

'기림 윈드오케스트라'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김해 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제44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한국관악협회 주최)에서 지도교사 김규훈의 지휘에 맞춰 행진곡 '아리랑 겨레'와 자유곡 'Liberty Guiding the people'을 통해

선보여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춘천관악경연대회에서도 마지막 날 작곡가 이문석의 '아리랑 겨레' 등 2곡을 연주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으며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리공고 관악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함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제2회 대

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도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은 김규훈 지도교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이리공고 교직원, 그리고 관악동문 예림회와 이리공고 총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박문제관리센터, 중독자 대안프로그램 실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오남경, 이하 전북센터)는 22일 센터 내에서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중독자 대안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으로 목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독자 대안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목공예 체험)'은 도박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대상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

로 대안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자기개발과 배움의 욕구 충족시켜 도박문제로부터 회복을 돕고, 도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오남경 센터장은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이외에도 가족공예 등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도박중독자들이 도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적 치유프로그램을 적극 발굴·마련하고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정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북지역 문제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치유상담 서비스와 예방 교육 및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상담기관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용찬씨,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선정

전북대학교 김용찬 대학원생(생리활성소재학과 박사과정·지도교수 정병훈)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년도 글로벌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내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및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높여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정부로부터 미래 국내 연구계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선정으로 김용찬 대학원생은 등록금과 학술활동비 등 3,00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2년 동안 지원받는다. 2년 후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인

정받을 경우 1년 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김용찬 대학원생은 이를 통해 '프린은 질환의 선제적 제어를 위한 분자유전학적 연구'라는 주제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프린은 질환의 발병 원인을 탐색하고, 프린은 질환의 다양한 숙주들에 대한 생체 표지자 발굴 및 조기 진단 플랫폼 구축하여 프린은 질환의 선제적 제어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찬 대학원생은 "항상 헌신적 지도를 아끼지 않는 정병훈 교수님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그리고 많은 학문적 도움을 준 프린은 분자유전학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선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 국가 재난형 질환인 프린은 질환에 대한 선제적 방제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